

#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

2025. 7.



# 〈조사개요〉

## 1. 조사 명

-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

## 2. 조사 목적

-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이에 우리 회의소는 부산지역 주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진입에 대한 부담, 기대효과 및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여 기업 성장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함

## 3. 조사 대상

- 매출액 기준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 기업 116개 사
  - ※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70% 이상 달성 기업

## 4. 조사 방법

-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설문 조사
- 조사표 회수 용역: 리서치한국

## 5. 조사 내용

- 기업 성장과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
- 중견기업 성장에 대한 부담 수준 및 요인
-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기대효과 및 지원방안

※ 보고서 내 통계치는 전수조사가 아닌 조사 응답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됨

I

**부산지역 중견기업  
후보기업 현황**

##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현황

-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총 116개 사
- 제조업 48개 사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8개 사, 건설업 18개 사, 운수 및 창고 8개사 순
- 제조업 세부업종은 1차 금속이 14개 사로 가장 많고 전기·전자 7개 사, 음식료품 5개 사 순

### 1.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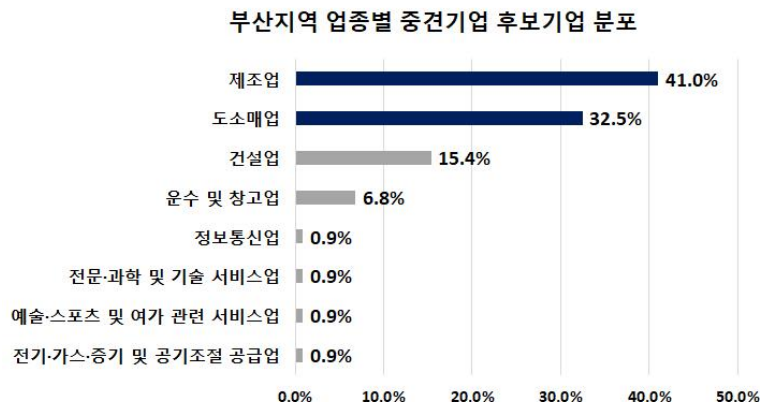
#### ○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총 116개 사

- 매출액 기준 ‘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’은 116개 사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전체 기업(매출액 25억 원 이상)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.1% 수준
-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현 시점에서 중견기업 달성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매출액,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음

※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 
-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주요 기준 항목은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,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 등이며 특히 업종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의 약 70% 달성을 기준으로 함

#### ○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개 사로 가장 수가 많음

- 이어 도소매업 38개사, 건설업 18개 사, 운수 및 창고업 8개 사, 정보통신업 1개 사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개 사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개 사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개사 등의 순



## ○ 제조업 세부 업종은 1차 금속이 14개 사로 가장 많음

-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금속이 14개 사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전자 7개 사, 음식료품 5개 사, 고무·화학 5개 사, 기계장비 4개 사, 신발 및 의류 3개 사, 자동차부품 3개 사, 금속 가공 2개 사, 조선기자재 1개 사, 기타 4개 사 등의 순

## 2. 주요 중견기업 후보 기업 세부 현황

### ○ A사

- A사는 창립된 이래 부산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향토기업으로 IoT 배선기구를 비롯한 전자·전기 부품 분야를 영위 중임
-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월드클래스플러스기업, 뿌리기술 전문기업, 부산형 앵커기업,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음
- 기존 배선, 분전반 등 주력 분야에서 벗어나 IoT, 스마트배선기구 등으로 기술적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견기업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

### ○ B사

- B사는 기술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선도기업으로 선박용 전장품과 제어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 중임
- 선박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전력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통합제어시스템과 선박 운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쉽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
- 또한 연료전지 및 개질기 제어 기술을 활용한 수소 사업과 조류 기반 에너지 설비 등을 개발해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이 중견기업 도약의 기반이 되고 있음

## ○ C사

- C사는 1990년 D사의 사업부로 시작되어 2001년 분사되었으며 현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 중임
- 로봇시스템, 레이저&FSW, 프레스자동화, 물류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용접, 그라인딩, 적재, 프레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통해 자동화 생산 라인 시스템 구축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4차 산업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

II

**부산지역 중견기업  
도약에 대한 인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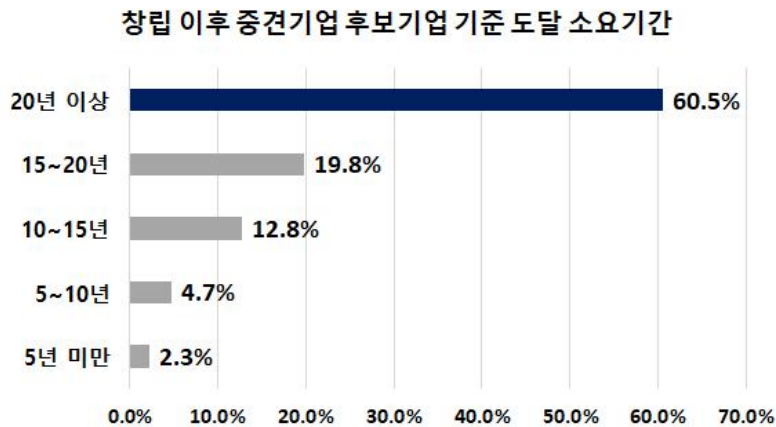
# I 기업 성장과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

-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 '20년 이상' 소요
- 중견기업 성장 위해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은 '안정적인 내수·수출 판로 확보'
- 현재 성장 속도 고려한다면 중견기업 진입은 향후 '5~10년' 전망 가장 많아

## 1.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도달 소요 기간

○ 부산지역 중소기업,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성장까지 '20년 이상' 소요

-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'중견기업 후보기업'으로 성장하기 까지 소요된 기간은 창립 이후 '20년 이상'이 60.5%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



- 이어 '15~20년' 19.8%, '10~15년' 12.8%, '5~10년' 4.7%, '5년 미만' 2.3%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단기간의 빠른 성장보다는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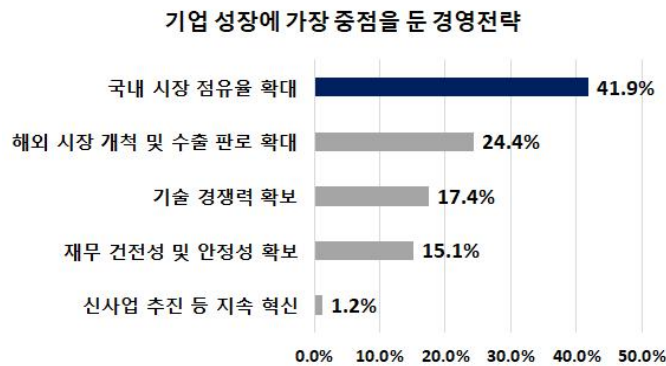
※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 
 -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  
 - 주요 평가 항목은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,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- 기업 성장의 소요 기간이 대체로 긴 이유는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낮은 부가가치와 제한된 성장성, 기술력 축적과 시장 확대에 장시간 소요되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

## 2. 기업 성장 중점 전략

### ○ 지금까지 기업 성장의 최우선 전략은 ‘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’

-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둔 경영 전략은 ‘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’가 41.9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이어 ‘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판로 확대’ 24.4%, ‘기술 경쟁력 확보’ 17.4%, ‘재무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’ 15.1%, ‘신사업 추진 등 지속 혁신’ 1.2% 등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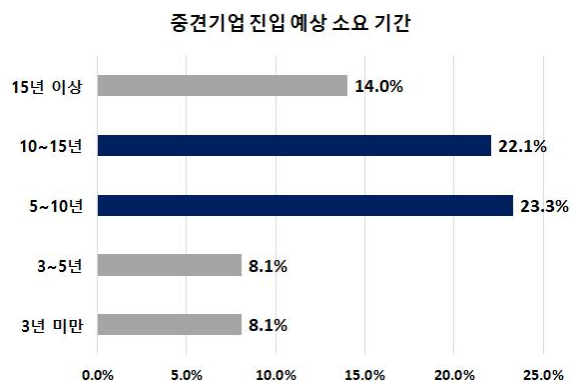


- 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나 신사업 추진 등의 혁신 역량도 중요하지만, 근본적으로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확인됨

## 3.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

### ○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는 ‘5~10년’ 내 전망 비중 가장 높음

- 현재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는 ‘5~10년’ 23.3%, ‘10~15년’ 22.1%로 나타나 중기적 관점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‘15년 이상’ 14.0%, ‘3~5년’ 8.1%, ‘3년 미만’ 8.1% 등의 순



## II 중견기업 성장에 대한 부담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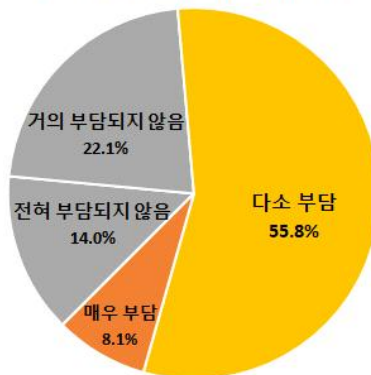
- 중견기업 성장은 도약의 기대보다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부담이 더 큰 상황
-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장 부담되는 사항은 '세제 혜택 축소'
-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됐지만, 기업 부담 완화에는 역부족

### 1. 중견기업 성장에 대한 부담 인식 수준

○ 중견기업 성장은 도약의 기대보다는 정책 사각지대로 향한다는 부담 더 커

-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세제·자금·판로 등 정책적 혜택을 축소할 우려하면서 중견기업 성장에 부담을 가지는 기업이 반수 이상

중견기업 성장에 대한 부담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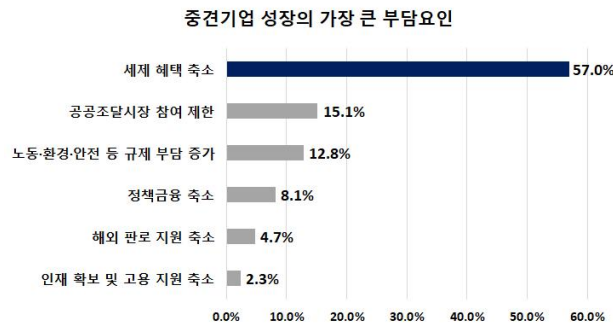


- 중견기업 성장이 부담된다는 의견은 63.9%('매우 부담' 8.1%, '다소 부담' 55.8%)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.1%('거의 부담되지 않음' 22.1%, '전혀 부담되지 않음' 14.0%)로 확인됨
- 도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업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들어선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
- ※ 중견기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상 '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'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부담감은 높은 상황

## 2. 중견기업 성장 부담 요인

### ○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장 부담되는 사항은 ‘세제 혜택 축소’

- 축소되는 지원책 중 가장 부담되는 사항은 ‘세제 혜택 축소’가 57.0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 ‘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’ 15.1%, ‘노동·환경·산업안전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’ 12.8%, ‘정책 금융 축소’ 8.1%, ‘판로 확보 지원 축소’ 4.7%, ‘고용 지원 축소’ 2.3% 등의 순



-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, 고용·투자·연구개발(R&D)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며, 특히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시절과는 다른 불리한 세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됨

### ○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중소기업 대비 시장 참여 제한

- 지역 기업의 주요 판로인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선구매, 중소기업 제한경쟁 등의 혜택을 받지만,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도 제외되는 등 시장 접근성이 크게 떨어짐

### ○ 지원은 사각지대, 규제는 대기업 수준

- 노동·안전·환경 등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와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기업 부담에 대한 정책적 완충 장치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점 또한 주된 부담 요인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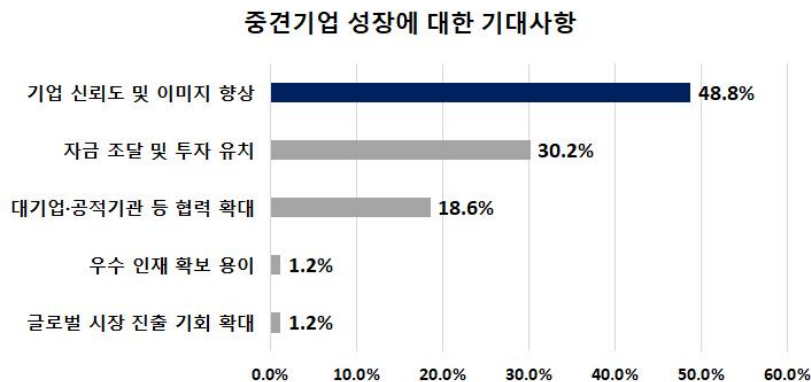
### III 중견기업 성장 지원방안

- 중견기업 성장 시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‘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’
- 단기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을 지원할 실질적 정책 강화로 전환 필요
- 중견기업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 강화 필요

#### 1.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대 사항

##### ○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‘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’ 가장 기대

-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장 기대하는 영향은 ‘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’이 48.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이어 ‘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’ 30.2%, ‘대기업·공적기관 등 협력 확대’ 18.6%, ‘우수 인재 확보용이’ 1.2%, ‘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’ 1.2% 등의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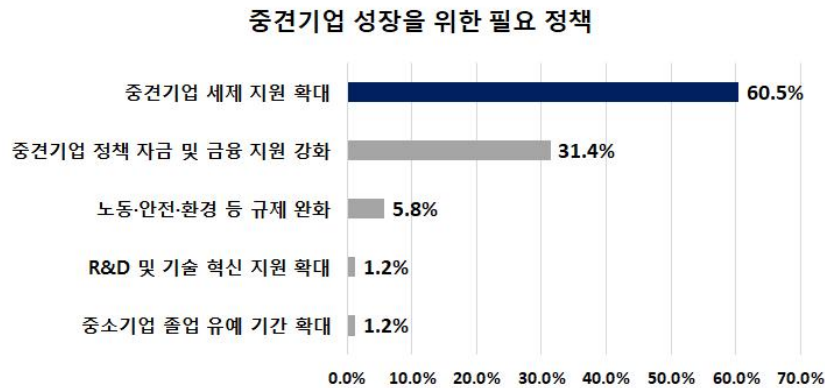
-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단순한 매출 규모의 증가를 넘어 ‘신뢰성 있는 기업’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하기에 시장 신뢰성 확보, 거래 기회의 확대, 금융권 접근성 향상 등 비가시적 영역에서의 기존 중소기업이 부족했던 기업 역량 확보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됨

#### 2.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방안

##### ○ 졸업 유예기간 연장 등 단기 지원에서 실질적 기업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

- 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강화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‘중견기업 세제 혜택 확대’가 60.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
- 이어 ‘중견기업 정책 자금 및 금융 지원 강화’ 31.4%, ‘노동·안전·환경 등 규제 완화’ 5.8%, ‘R&D 및 기술 혁신 지원 확대’ 1.2%, ‘중견기업 졸업 유예 기간 확대’ 1.2% 등의 순



- 중견기업으로의 적극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세제 혜택의 실익을 약화시키는 최저한세율 폐지 또는 인하, 각종 세제 지원 대상 기준 및 공제율 확대 등 중견기업이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지원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

**※ 중견기업 최저한세제도 - 「법인세법」**

-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7%인 반면 중견기업은 8%에서 최대 17%까지 적용되면서 조세 부담을 높이고 각종 세제지원의 실익이 상실되는 원인으로 작용
- 또한 R&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R&D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최저한세와 별도로 분리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R&D 비용 역시 최저한세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제를 받지 못해 조세 부담이 가중됨

-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등의 단기적 지원과 함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대가 될 수 있는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